

경제계 신년인사회

- 인사말 “기업활동 위한 환경 보장” -

“수출 증가, 여러분과 국민들께 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새해 한해의 출발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사실 오늘처럼 여러분들께 인사말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날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우선 좋은 일부터 먼저 축하를 드리겠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할 일은 수출이 2,500억불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당초 연초의 전망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증가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30%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기업, 기업인,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수출이 이만큼 하지 않았더라면 내수가 하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갔겠나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수출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여러분들께 기업인, 노동자,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외국인 투자도 지난 한 해 동안 127억불 조금 넘어섰다. 이것은 전년 대비 두 배 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액수로 보면 99년도보다는 적지만 99년도는 혈값 때 매출을 하던 시대의 외국인 투자이고 지금의 외국인 투자는 될 만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이기 때문에 의미가 훨씬 다르다고 생

각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의 앞날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밝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서 밝은 신호다. 그래서 우선 축하를 드린다.

이만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기업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나가보니까 우리 상품이 제법 힘깨나 쓰고 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신 국민 여러분들 모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국제상공회의소 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셨죠? 개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경축할 일이다.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축하드린다.

“기업활동에 최대한 좋은 환경 보장”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축복으로 느끼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아니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같은 기업간에도, 예를 들면 상장기업, 등록기업의 수준에서는 지금 역대 최대의 이익을 내고 최대의 튼튼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전망은 밝지 않지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경영을 선언하는 수준에 왔다. 물론 이것은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민경제를 위해서 기업이 대기업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매우 좋은 결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아마 기뻐하고 또 감사할 것이다. 상장기업, 등록기업은 이런 도전이라도 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하루하루의 환율 때문에 가슴을 졸이고 있을 것이고 그밖에도 많은 환경, 열악한 환경, 중소기업 그전부터 가지고 있던 인력과 자본, 또는 시장, 금융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는 데다가 환율까지 이렇게 해서 매우 어렵지 않겠나. 많은 비정규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열악한 처우와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숫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지금 나쁜 경기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든 우선 이 단기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상반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 종합투자계획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계획 대비 초과달성해서 올해 경기 또는 성장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데 대해서 이것을 보완하고 뒷받침해서 적어도 1~2% 정도의 성장잠재력을 이 투자를 통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그밖에 건설경기의 위축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경제에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해서 최대한 좋은 환경을 보장하겠다, 항상 노사관계를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규제개혁을 말씀하셨다. 노사관계는 작년 한 해 조금 나아진 편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취약한 분야를 하나하나 챙겨 선진 도약”

규제완화, 이것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금년 연말에 가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는 중소기업 빛 좀 보는 해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

중소기업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중소기업도 장기 마라톤 레이스에서 대기업과 나란히 함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체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그 동안 구상해 왔고 올해부터 바로 실천에 들어간다. 효과가 1~2년만에 나타날지 이것은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효과가 나도록 하겠다. 경제 신경 좀 써라, 이렇게 하시는데 부속실에도 경제를 전공하고 경제만 담당하는 부속실 비서관을 따로 두고 있다. 거기에서 문 앞에 딱 나

가면 경제보좌관이 있다. 그 다음 정부로 가면 우리 경제부총리가 또 하고 있다. 그 다음 그것도 못 믿어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지금 분과까지 만들어서 구석구석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디서든 땡 신호가 울리면 즉시 경보가 오도록 만들어 놓고 대처한다.

앞으로 어떤 위기상황을 위기의 원인을 해태하는 일도 없도록 관리할 생각이다. 일단 그 기본을 관리하면서 그 위에서 앞으로 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생각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 올해 역시 물가, 임금, 또 노사관계, 환율, 이 제반분야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최선의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경제가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다. 지금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모두들 지금 불안감에 빠져있는데 속도가 장차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또 약간 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또한 정상이라고 봐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경제는 선진경제의 문턱에 다가와 있다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다.

저도 대단히 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2년 전에 제 임기를 시작했지만 2년이 지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은 참 많고 개인적으로 당한 고초도 많지만 얻은 결론이 하나 있다. 우리 경제 선진경제로 곧 진입한다는 것이고 우리 한국, 선진한국으로 곧 들어간다, 문턱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다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미 아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제가 넘긴 것 같다. 대통령이 말을 하니깐 종도 못 치고 그냥 사회자가 가만 계시겠지만 시간은 넘어간 것 같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안타깝지만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이 아직 불비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선진경제, 그리고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필요한 조건들, 좀 취약한 분야들을 하나하나 챙겨나가서 전체적으로 선진경제, 선진한국의 기본틀을 완전히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다. 제 임기말 또는 다음 정권의 임기 첫 해 2만불 시대에 들어서서 2만불 깃발 달고, 다음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선진국 도로에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중진국과 선진국의 그 톨게이트에서 제가 한국호 자동차의 키를 딱 넘겨줄 생각이다.

감사하다. 저 혼자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다 해 놓으신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노동자 여러분들이 다 해 놓으신 것이다. 다만 이것을 그렇게 제도화하고 마무리 하고 이름을 딱 붙여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부도 자기 몫을 하겠다, 제도화하고 꾸려서 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다. 경제가 선진화되면 우리 정부도 선진화돼야 되고 제도도 선진화돼야 되고 의식도 선진화돼야 되는데 제도 선진화에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 제도 선진화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정부, 그야말로 역량 있는 정부, 열심히 일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되도록 올 한 해 동안 제가 또 매달릴 생각이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남의 잔치에 와서 저 장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께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최선의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다. 올 새해 한 해 우리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기업과 함께 가는 우리 국민여러분, 새 희망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한번 가십시오.